경제혁신 3개년 계획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7년 3월 27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26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3. 26(일)	담당부서	자원개발전략과 광물자원팀 석유산업과
담당과장	윤정원 팀장 (044-203-5150) 박재영 과장 (044-203-5220)	담 당 자	송승희 주무관 (044-203-5156) 우지식 사무관 (044-203-5218)

광물, 석유 등 국가 비축자산 활용 효율화 추진

- 민간의 수급장애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비축광물 민간대여제 실시

- 시장 수요를 반영한 국제공동비축사업 추진, 석유비축시설 대여절차 간소화 등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)는 광물 비축자산에 대한 민간대여제 도입과 석유 비축자산의 활용 제도개선을 추진한다.

○ 국가 비축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상시적인 국내 수급안정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,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 창출을 통한 비축자산의 지속적 확충·관리에도 이바지했다.

< 광물비축자산 민간 대여제 실시 >

□ '06년부터 추진해온 희토류, 크롬, 몰리브덴 등 **10대 희유금속에 대한 전략비축을 완료**(국내 수요량의 64.5일분, 총 77,895톤)함에 따라,

○ 희유금속의 특성상 빈번히 발생하는 **민간업계의 수급장애 해결을 지원하기**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**비축광산물 대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.**

* 희유금속(Rare Metal): 천연상태의 매장량이 극히 적고, 지역적 편재성이 크며, 경제적 추출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광물로서,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전기차, 항공기 등 첨단 제조업의 필수 원료로 사용되어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

□ 비축광산물 대여는 민간업체가 해외공급사의 생산차질, 운송차질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광물 수급이 어려울 경우 활용 가능한 제도로

○ 대여를 신청한 민간업체는 비축물량의 일부를 일정기간(3개월) 대여 후 **현물로 상환하**게 되며, **대여 수수료는**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.

※ 가격 급등, 수입량 급감 등 국가적인 수급위기 발생할 경우 상시적인 국내 광물수급 안정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**비축광물을 수요업체에 매각하는 방출제도를 운용**

□ 제도 시행에 따라, 국내 업계는 광물의 일시적인 공급장애와 가격 등락에 따른 **생산차질을 방지하고,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**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특히, 희유금속은 부존·**생산이 소수국가에 편중**되며, 소수 자원기업이 거래를 독과점하여 **공급 리스크 및 가격 변동성**이 큰 만큼,

○ 수급 장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비축물량을 활용하여 **원료 조달기간의 단축과 구매비용 절감**을 가져올 수 있으며, 해외 공급사의 일방적 계약변경 등에 대처가 가능할것으로 기대된다.

* 원료 공급시 해외로부터 발주할 때 최장 90일이 소요(생산+운송+통관)되나 자연재해·선적차질 등 긴급상황에서 광물공사를 통해 대여할 경우 최단 5일이내 공급 준비

** (사례) 중국업체와 페로크롬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A사는 '16년말 현지 생산차질로 적기 공급 차질. 당시 가격상승기로 현물가는 약 $2,300/톤, 장기공급할인가는 $1,900/톤으로 현물가로 구매하여 톤당 약 400달러의 구매 손실

○ 한편, 광물자원공사는 **비축자산의 효율적 운용**을 통해 신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**민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**을 보다 강화할것으로 보인다.

□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"**비축광산물 협의체**"를 구성해, 수요업체의 의견 수렴과 정보 공유의 장으로 운용하기로 했다.

○ 아울러, 광물공사는 국내 업체에 국제 광물시장·가격 동향을 제공해 민간의 광물수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원할 계획이다.

< 석유비축자산 활용 효율화 추진 >

□ 석유공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**비축시설 등 석유비축자산을 활용한 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.**

○ 석유공사는 국제공동비축사업*, 비축시설 대여** 등을 추진하여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수익을 창출해 왔으나

* 산유국 국영석유사, 국제 트레이더, 석유 메이저 등에 석유비축시설을 임대하여 석유를 유치하고 계약물량에 대해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확보하는 간접 비축사업

** ①국내 정제·저장시설 사용장애로 인해 수급차질이 예상되거나 ②물류비용 절감이나 국제수지 개선 가능한 경우 정유사에 비축시설을 대여

○ 앞으로 비축자산 활용도를 제고하고 수익을 확대함으로써 저유가 시기 **비축유 구입 확대와 비축시설 유지보수 등에 우선 활용**할 계획이다.

□ 국제공동비축을 통한 간접 비축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**정유사 선호 유종을 고려**하여 국제공동비축사업자를 적극 유치하고

○ 석유공사의 입출하 설비를 통해 원유를 도입할 경우 절감 가능한 물류비용을 석유공사가 정유사와 공유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다.

□ 현재 비축시설 대여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 후 2년 이내에서 대여가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나

○ **2년 이내에서 산업부 장관 승인 없이 대여를 허용**하고 대여기간 연장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**대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.**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광물자원팀 송승희 주무관(☎044-203-5156), 석유산업과 우지식 사무관(☎044-203-521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전략비축 희유금속 대여 및 방출제도 개요

□ (대여제) 수급안정시에 개별업체의 특수한 사정으로 일시적인 수급장애가 있을 경우 광물공사에 신청하여 비축광물을 일정기간 대여 후 현물상환

○ (대여시기) 수급 위기(불안·비상)시가 아닌 수급안정기

○ (대여요건) 개별 업체가 예상치 못한 사유*로 긴급한 수급장애가 발생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경우, 수급 장애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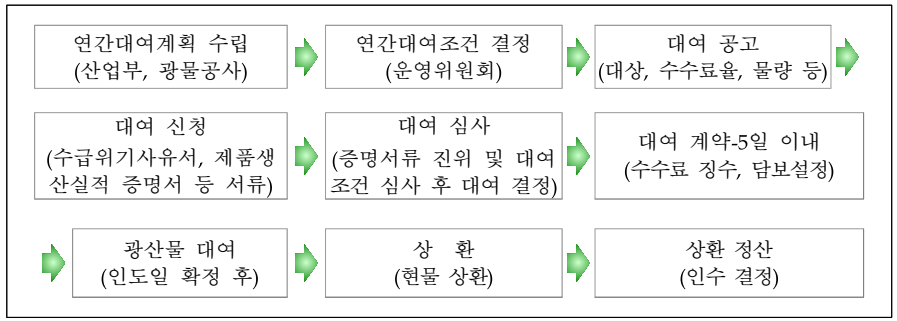
* 자연재해, 운송차질, 해외 공급업체 생산차질 등

○ (대여물량) 수급불안시 방출한도량 범위내

○ (대여기간) 광물 인도시점부터 3개월

○ (대여수수료)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근거 매년 초 재산정

○ 민간대여 추진절차 (광물공사)



□ (방출제) 광물가격의 급등, 수입량의 급감 등 국가적인 수급위기*(불안·비상)시 산업부의 승인하에 수요업체에 비축광물을 매각

* 가격변동성, 수입량 등 정량 기준과 지역정세, 산업이슈 등 정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출상황 판단

※ 비축광물 대여 및 방출 업무 관련 문의 : 한국광물자원공사 비축사업실 (033-736-5831~3)

참고 2 전략비축 희유금속 현황

□ 광물공사 희유금속 비축 현황

('16년말 기준, 단위 : 일)

광 종	크롬	몰리브덴	안티모니	티타늄	텅스텐
비축일수	50	70	60	55	80
광 종	니오븀	셀레늄	희토류	갈륨	지르코늄
비축일수	65	50	100	65	50

* 조달청은 광물공사와 별도로 희유금속 9종 비축(실리콘, 망간, 코발트, 바나듐, 인듐, 리튬, 비스무스, 탄탈륨, 스트론튬)

□ 광종별 용도 및 생산·수입현황

('16년 기준, 단위 : 톤)

광 종		용 도	전세계 생산량	주요 생산국	국내 수입량
크 롬		스테인리스강, 내식용 합금강, 항공기 엔진 등	30,400,000	남아공, 카작, 터키	576,569
몰리브덴		건축구조재용 Super Alloy, 탱크 등	227,000	중국, 칠레, 미국	18,364
안티모니		난연제, 납축전지, 촉매제 등	130,000	중국, 러시아, 타지키스탄	7,121
티 타 늄		항공기, 자동차 부품, 열교환기 등	6,600,000	남아공, 호주, 중국,	4,946
텅 스 텐		특수공구강, 초경합금, 고속도강 등	86,400	중국, 베트남, 러시아	304
니 오 븀		자동차용 고장력강, 초전도 자석 등	64,000	브라질, 캐나다	7,014
셀 레 늄		유리소색제, 태양전지, 절삭공구 등	2,200	일본, 독일, 캐나다	29
희토류	란탄	영구자석, 반도체 연마재, 형광체, 촉매제 등	126,000	중국, 호주, 러시아	2,804
	세륨				
갈 륨		인공뼈, 원전용 연료봉, 연마재, 내화벽돌 등	N.A.	중국, 독일, 카작	37
지르코늄		그라인딩 미디어 등	1,460,000	호주, 남아공, 중국	1,384

* 자료원 : USGS 2017